

행복을 꾸꾸는

“희망 인큐베이터”

● 희망인큐베이터, 감염인지원센터의 자활공동체이다. 말 그대로 다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자활을 위해 새로이 시작하는 장소를 뜻한다. 한국감염인협회에서는 작년 말부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자원 아래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이 사업을 올해부터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의 특기를 실려낼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은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각각의 특성 있는 소그룹을 형성,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김현진 한국감염인협회

평소 재가복지 활동을 하면서 나 이 드신 분들의 일상을 돌이켜 볼 때 그분들의 일상은 부료하기 짝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치료제 복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없는 식욕에 불이라도 발아 억지로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딱히 약속이 있어 갈 곳도 없고 경제 사정으로 취미생활 또한 마땅히 없어 그렇게 방안에 누워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간혹 알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잦은 진료와 투약 기초생활 수급비와 관련하여 일용직을 포함한 시간제 아르바이트 부업조차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대부분 외부와의 단절된 생활로 건강을 회복하기 보다는 무기력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나로서도 외부와의 접촉이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할뿐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아니 없었다가 보다는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때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감염인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감염인 주체 사업공모를 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생각으로만 일관해왔

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작업장에 대한 감염인들의 수요도와 참여 욕구에 대해 작게나마 설문조사를 조사 실시했고, 인거리 마련을 위해 관련 업체를 수소문하며 작업장 개소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재단 등을 비롯한 심사위원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한국감염인협회에서 제출한 계획이 공모에 당선되었다.

드디어 사업 실시를 앞두고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평소 한테 모이기 어려운 동료 감염인들이 30여명이나 참가했다. 그 숫자로 볼 때 현재 많은 감염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사업 종목은 여행용 휴지 포장 이었고, 작업 장소는 감염인 지원센터 6층에 자리잡았다. 작업장 제목이 담긴 작은 간판도 내걸었다.

드디어 첫 작업이 시작되었다. 초기 참여인원은 6명. 기대만큼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무엇인

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 차 보였다. 며칠 동안은 정기적인 아침 출근에 힘겨워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적응하기 시작했다. 일부 젊은 참가자들은 일을 시작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떠나가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작업장이 사회로의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했다.

한편으로 나이가 있으신 참가자들은 집에서 혼자 부료하게 보내기 보다 매일 정기적으로 일터로 나와서 함께 웃고 즐기며 일하는 삶의 즐거움을 느껴가고 있었다. 한테 모여 나누는 것이 가져온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부정적 건강이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져 갔다. 어느 덧 이 공간은 정기적인 참여자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감염인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농요 감염인들의 사랑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평소 말 수가 적으시고 내성적인 줄 알고 있던 분들이 이곳에 모이면 모두들 개그맨 뺨치는 말솜씨를 자랑하신다. 특히,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형님은 두 시간이나 걸러 출근하면서 도 돈 보다도 이곳에 출근 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며 식욕이 좋아져 체중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셨다고 한다. 이분들이 항상 고마

움을 표시하실 때마다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한 달이 좀 지났을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스스로 일해서 얻은 수익금을 지불하게 될 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

종일 휴지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한 달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작업장의 결과분은 어느 정도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염인의 특성과 다양한 연령층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라면 작업장 참여가 장래에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부합되는 납품업체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역(서울)의 특성상 단순작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인거리가 개당 단가와 생산성이 낮아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여러 납품업체의 개발과 연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들 느끼며 나름대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알아보았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일이 예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단순 작업이란 게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예전에 흔하던 부업 거리가 대부분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만들어오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나 숙련을 요하며 납기일이 촉박하여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작업장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눈떠 가야할 곳이 생겼고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건강에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하신다.

한편으로 카프가 목표로 했던 작업장 운영의 목표도 어느 정도는 달성되고 있기도 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안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여유로운 미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경제적 자립보다는 공동작업을 통하여 참여자 모두가 독거로 인한 외로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내고 정보교류 및 심리적 안정과 규칙적인 생활로 인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자활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의미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을 통해 규칙과 규율에 적응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단합을 이루어 가는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도 자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